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7/12~7/18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무이유회문제의연구	호진	불광출판사	6	꽃잎이떨어져도꽃은지지않네	법정, 최인호	여백
2	신심명(물룩개달음의노래)	해국스님	모과나무	7	행복 뇌 접속	릭한신/김미옥	담앤북스
3	행복은덜처럼우리곁에있네	월호스님	(주)조계종출판사	8	숨만제대로쉬면무병장수문제해답	수신오도	사유수
4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법	우흥근/생관현	효림	9	마지막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태평/김태우	민족사
5	명추회요-종경록 활요본	희당조심/원택	장경각	10	스승과제자, 함께걷다	성재현	(주)조계종출판사



“어떻게 살 것인가” 금강경서 답을 찾다

신성민 기자 moip79@hyunbul.com

〈금강경(金剛經)〉은 한국불교 대표종단인 조계종의 소의 경전이다. 이런 이유로 가장 많은 해설서가 나온 불교 경전이고 대중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조계종 기획실장 일감 스님(사진)이 발간한 〈금강경〉 해설서인 〈금강경을 읽는 즐거움〉은 조금 색다르다. 적지 않는 해설서가 원전과 그 해석에 집중한다면 일감 스님의 해설서는 사유와 통찰을 통해 경전을 이야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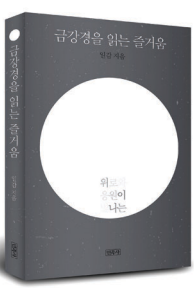
종단 중앙종무기관의 소임자 이전에 일감 스님은 템플스테이로 이름을 널리 알렸다. ‘이것 저것 분별하지 않습니다. 나부터 내비두세요’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진행한 금강산사와 불교 텔레비전 내비두 콘서트만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특색 있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 무총리상을 받기도 했다. 스님은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금강산에서 내비두 콘서트를 진행, 갖가지 스트레스로 지친 대중들이 마음 깊이 쉬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빠르고 복잡하게 돌아가는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 불교의 훌륭한 가르침들이 그들의 삶을 고요하고 지혜롭게 했으면 한다”는 스님의 바람은 템플스테이를 거쳐 이번 〈금강경을 읽는 즐거움〉에도 오롯이 담겨 있다.

〈금강경을 읽는 즐거움〉은 불교 수행을 바탕으로 우리 시대에 대한 사색과 통찰, 실천행이 빛나는 일감 스님의 첫 책이다. 스님은 이 책을 통해 개인과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삶에서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금강경 이야기를 하고 있다. 단순한 금강경 해설서라기보다 스님의 깨달음과 대중을 향한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가 듬뿍 담겨 있어 편편마다 잔잔한 감동을 준다.

그래서인지 〈금강경〉사구계에 대한 일감 스님의 해석은 새롭다. 스님은 사구계를 이렇게 해석한다. “만약 모양 속에서도 여래를 보고 소리 속에서도 여래를 본다면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여래를 볼 수 있으리라.”

일반적으로 모양과 물질 등의 허망함을 알아 이에 집착하지 않으면 여래를 만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스님은 이 세상이 공한 것이 아니라 부처로 가득 찬 세상이라는, “가는 곳마다 부처를 볼 수 있으리



금강경을 읽는 즐거움
일감 스님 지음
민족사 펴냄
1만 5천원

사색·통찰 담긴 ‘금강경 해설서’
공의 허무주의적 해석 경계하며
사유로서 버려낸 경전 풀이 ‘눈길’

“함께 살아가자” 관계성 회복 역설

“나를 잘 생각해 보면 ‘나만의 나’가 아닙니다. 독특한 하나의 존재가 아닌, ‘연기적(緣起的)으로 존재하는 나’입니다. 가장 쉽게 이해해 보자면, 내 옆의 공기가 오염되면 나도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기가 깨끗해야 나도 깨끗합니다. 공기는 더러운데, 나는 깨끗할 수 없습니다. ‘공기는 곧 나’입니다.”

기실 사람은 누구나 관계를 떠나서 살아갈 수 없다. 스님의 말처럼 우리 사는 세상은 서로 연결돼 있고 이웃의 고통은 내 고통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생각하고 말하는 ‘팔정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더 나아가 사람과 환경의 관계 또한 연기적 관계다. 이 관계의 미학을 알면 이 시대의 온갖 갈등을 근원부터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공’과 ‘연기’는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부처로 이르는 길을 설명한 것이다. 해설서의 마지막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부처로 사는 삶’을 제안하고 있다. 방법은 간단하다.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옆 사람을 부모와 스승같이 존중하고 이웃과 즐거움과 고통을 나누는 것이다. 스님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부처’라고 말하고 있다. 마지막까지 독자들을 위해 던지는 메시지도 한결같다. “우리 모두 부처로 삼시다.”

“하루를 살더라도 ‘삶의 참된 가치는 무엇인가’에 늘 깨어 있어야 하고, 그 종착역은 늘 사람이어야 하고,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중략〉 부처님이 고구정녕히 말씀하신 ‘나만 나’라고 하는 생각을 넘어 나와 남이 함께 하나가 되는 자리에서 선법(善法)을 행하고, 이런 마음이 무상정등정각을 이룬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일감 스님의 〈금강경〉 해설을 관통하고 있는 것은 관계에 대한 고찰과 역설이다. 이는 스님이 쓴 머리말에도 잘 나타난다. 스님은 “〈금강경〉 전체를 꿰뚫고 흐르는 한 말씀이 있다면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관계 속에 존재하니 관계를 좋게 해서 행복하게 잘 살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스님의 생각은 해설서 곳곳에 묻어 나온다.

“나를 잘 생각해 보면 ‘나만의 나’가 아닙니다. 독특한 하나의 존재가 아닌, ‘연기적(緣起的)으로 존재하는 나’입니다. 가장 쉽게 이해해 보자면, 내 옆의 공기가 오염되면 나도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기가 깨끗해야 나도 깨끗합니다. 공기는 더러운데, 나는 깨끗할 수 없습니다. ‘공기는 곧 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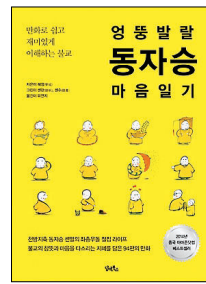
기실 사람은 누구나 관계를 떠나서 살아갈 수 없다. 스님의 말처럼 우리 사는 세상은 서로 연결돼 있고 이웃의 고통은 내 고통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생각하고 말하는 ‘팔정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더 나아가 사람과 환경의 관계 또한 연기적 관계다. 이 관계의 미학을 알면 이 시대의 온갖 갈등을 근원부터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공’과 ‘연기’는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부처로 이르는 길을 설명한 것이다. 해설서의 마지막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부처로 사는 삶’을 제안하고 있다. 방법은 간단하다.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옆 사람을 부모와 스승같이 존중하고 이웃과 즐거움과 고통을 나누는 것이다. 스님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부처’라고 말하고 있다. 마지막까지 독자들을 위해 던지는 메시지도 한결같다. “우리 모두 부처로 삼시다.”

“인생 길지 않다...남 미워하는데 낭비말라”

영동발달 동자승 마음일기

취청 지음, 섀넌·센수 그림, 영연지 옮김
담앤북스 펴냄 1만 4천원



〈영동발달 동자승 마음일기〉는 불사이(不二寺)에 사는 동자승 섀넌의 좌충우돌 절집 일상을 담은 만화다. 동자승 섀넌이 스승에게 꾸중도 듣고 칭찬도 들어오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94편의 만화에 재미있게 그려냈다.

이 책은 2014년 7월 중국 출간 직후 중국 아마존닷컴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화제를 모았다. 저자인 취청 스님은 중국불교협회 회장이자 베이징에 위치한 용천사의 주지이다. 스님은 불교 포교를 위해 동자승 섀넌을 주인공으로 한 것을 비롯해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중국 대표 SNS인 ‘웨이보’에 올리고 있다. 이 계정의 팔로워 수가 무려 3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높다.

그렇다면 30만명씩이나 되는 중국인들이 동자승 섀넌에 빠져든 이유는 뭘까? 답은 간단하다. 재미있기 때문이다. 아직 수행이 덜 익어 천방지축인 동자승 섀넌이 날마다 벌이는 사건 사고, 섀넌을 웃고 울리는 도반과 신도들, 진지하면서도 짓궂은 스승의 캐릭터가 절집을 배경으로 한 시트콤을 연상케 한다. 섀넌의 활약(?)을 보며 웃음 짓는 사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불교의 참뜻을 알아 가는 보람도 크다. 간결하면서도 친숙하고 사랑스러운 그림도 중요한 인기 비결이다. 특히 작고 통통한 동자승 섀넌 캐릭터는 요즘 국내에서 인기 만점인 카카오톡이나 라인의 이모티콘 캐릭터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아이스크림은 절대 양보하지 않는 육식쟁이, 눈이 떠질 때까지 실컷 자는 게 소원인 게으름뱅이, 틈만 나면 사부님께 도반들 잘못을 이르는 고자질쟁이, 이것이 동자승 섀넌의 실체다. 하긴, 섀넌이 모범적이고 순종적인 동자승이었다면 애초에 이 만화의 주인공이 되지도 못했는 것이다. 천방지축 사고공룡치기에 절집의 일상이 공부요, 그 자체가 수행인 것이다.

다행인 점은 섀넌이 모르는 게 있으면 ‘모른다’고 솔직할 줄 알고, 경전 공부나 생활면에서 자신보다 나은 도반을 보면 스스로 반성할 줄 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불교의 참뜻을 알고자 하는 열정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자칭 ‘일등 수행자’다.

이런 연유로 섀넌은 날마다 스승에게 묻는다. 동자승 섀넌이 천진한 얼굴로 불법(佛法)을 구할 때마다 스승은 알기 쉽게 설명해 준다. 섀넌이 어리석은 상념에 젖어 허송세월을 보낼 때면 따끔한 질책을 던지기도 한다.

동자승 물음 통해 불교 참뜻 전달

현대인이 겪는 마음 문제의 답 제시

섀넌: ‘아집’이란 무엇인가요?
스승: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만 보면 자신의 감정과 생각, 체면에만 사로잡혀 매순간 ‘보이는 것’에 연연하며 이를 방어하고 집착하는 데 시간을 허비한다. 이런 것들이 온갖 갈등과 번뇌를 만들어 내는데 이것이 바로 ‘아집’이다.

섀넌: 사부님,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왜 전하기 빠르지 않은 걸까요?
스승: 뿌린 만큼 거둔 것이 자연이치이니, 정작 마음은 뿌린 것 그 이상을 바라서이다.

섀넌: 사람들은 날 어떻게 생각할까? 사부님은 날 어떻게 생각할까?
스승: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쓴다는 것은, 사실 내가 그들에게 ‘보여 주고 싶은 이미지’ 대로 보이는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다. 나를 방어하는 것, 나를 자랑하고 싶은 것 모두 내면의 마음이 약하다는 증거다. 나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만 외적인 것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동자승 섀넌의 물음과 이에 대한 스승의 답을 통해 우리는 2,600년간 전해온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무상무아 번뇌 인욕 등 익히 들었지만 자신의 일상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보지 못한 불교용어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내려놓음’이나 ‘마음챙김’, ‘깨달

음’처럼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불교수행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다. 동자승 섀넌이 이 책의 주연이라면 불이사를 찾는 사람들은 훌륭한 조연이다. 성격이 나빠 부모에게 야단 맞고 주눅 든 어린이, 애인에게 이별 통보받고 괴로워하는 청년, 결혼 못해서 우울한 노처녀, 주식이 폭락해 낙담한 중년 남성 등 불이사를 찾아온 다양한 중생의 모습에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탐욕과 어리석음 그리고 분노에 휩쓸려 중요한 일과 인간관계를 망치고 후회하는 내 모습 말이다.

섀넌과 그의 스승은 그들에게 때로는 위로로, 때로는 충고를 전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를 일러 준다.

다른 사람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 눈물짓는 신도에게 섀넌은 자원봉사를 권하며 이렇게 위로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으니, 그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데 쏟지 마라. 마음속의 미움을 비우지 못하면 자신의 인생이 고달파질 뿐만 아니라 행복까지도 잃게 된다.”

많은 것을 헌신한 상대에게 냉대 받아 속상한 사람에게 섀넌의 스승은 “상대방에게 많은 것을 양보해서 속상한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보답을 바라는 마음 때문에 속상한 것”이라고 충고한다.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나고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사람에게 섀넌은 거울을 내민다. “일일 뜻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는 거울에 자신의 화난 모습을 비춰 보라.”는 말과 함께.

불이사를 찾아온 사람들이 섀넌이나 그의 스승과 나누는 대화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된다.

이 과정서 괴로움의 원인이 사실은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 사람이나 물질에 대한 집착, 비교하는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임을 알게 된다. 책장을 덮은 뒤에 또 섀넌과 스승의 말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마음속 번뇌와 집착을 버릴 수 있을 것이다. 비워진 마음자리에는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자유와 평화가 깃들 것이다.

주인공이 동자승이니 언뜻 보면 불자만을 위한 책으로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불교신자나 불교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불교 용어와 교리를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 되어 줄 것이다.

김주필 기자 kimj4217@hyunbul.com

거제멸치 청정지역

거제 가조도 섬마을, 작은사찰내 삼성각 건립을 위하여 지역 특산물 판매에 동참하였습니다.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사찰과 불자님 단체구입 환영 아파트, 중소기업 단체 환영

참멸치, 청어멸치, 다신멸치, 실치 등 1박스 1.5kg (가격 10,000원 부터)

택배는 멸치 5박스 주문시에는 택배비 무료

선입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소비자직거래로 신선도 유지 및 재고는 일체 취급하지 않습니다.

폰드폰드 멸치

농협 352-0211-4308-13 (예금주: 박동열)
구입문의: (055)633-9766 / 010-7169-9878
거제 금룡정사 대정 스님(두손모음)

봉침교육 숙박휴양 건강힐링캠프

[경기도 양평]

원장 천병석

암환자 전문 영양소 수시건강상담 유기농 죽염식단

황토 통나무집에서...

본연의 자가 면역력을 높여 내 몸 스스로가 자연치유 할 수 있도록 돕는 자연치유요양원

http://healthycamp.co.kr (검색창에서 '건강힐링캠프'를 치세요)

전화 070-8884-8599 건강토론

건물안내

- 위치: 전남 함평군 월야면 용암리 272-27번지
- 2층 건물 한 채, 한옥기와집 한 채
- 대지 400평, 전 400평
- 용도: 사찰, 납골당, 양로원, 요양병원 여러가지 적합, 현재 별장으로 사용중
- 가액: ① 4억 5천만원 (조정가능 합니다.) (1억 5천대출안고 2층 건물 및 토지 상가하고도 나머지 교환 가능함) ② 1억 5천대출안고 3억 현찰 가능함

- 위치: 전남 신안군 압해읍 북동리 874-9번지
- 2,143평 / 창고 1동
- 바닷가 바로 앞, 평당 14만원 (조정가능)

■ 상담전화: 010-8666-6210

현대불교신문 구독문의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울리게 지명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구독문의: 02)2004-8200